

# 쌀값 하락에 태풍 덮친 들녘...쓰러진 農心

## 전남 최고 206mm 비에 강풍...논 1322ha·과일 낙과 피해 신호등·가로수 부러지고 정전 속출...뱃길·하늘길도 통제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38.9m(여수)에 이르는 강풍을 동반한 태풍 '차바'가 남해안을 할퀴고 지나가면서 여수와 고흥, 완도, 보성 등 전남지역 곳곳에서 침수·정전 피해가 속출했다.

22년 만에 한반도에 상륙한 '10월 태풍'이 농경지를 강타하면서 쌀값 하락에 울던 농민을 비롯한 농가 전체가 수확기를 앞두고 시름에 잠겼다.

◇쌀값 하락에 태풍피해까지 농민 이중고 = 5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현재 도내 1322ha 논에서 벼가 쓰러진 것으로 집계됐다. 완도가 709ha로 가장 피해가 컸으며 신안 283ha, 장흥 95ha, 보성 65ha, 여수 28ha 등이었다.

국제규격 축구장 면적이 7140㎡인 것을 고려하면 하루밤 사이 최소 축구장 1850개 규모의 논에 심어진 벼가 모조리 주저앉은 셈이다. 농민들로서는 풍작에 따른 쌀값 하락으로 시름하던 차에 이례적인 10월 태풍이 휩쓸고 지나가면서 이중고를 겪게 됐다.

상주, 시급지 등 채소를 재배하는 비닐하우스도 강풍을 동반한 태풍 앞에 속절없이 무너지거나 비닐이 찢겨졌다. 여수 시에서는 비닐하우스 10개동(6340㎡)이 태풍 피해를 입었고 장흥에서도 비닐하우스 3개동이 피해를 입었다.

전남도는 6~7일께 배, 감, 사과 등 수확기를 맞은 과일들의 낙과 피해 등이 반

영된 시·군별 피해 집계는 완료되면 피해 규모가 훨씬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통상 낙과 피해는 태풍이 지나간 뒤 농민들이 현장을 확인하고 읍·면사무소 등에 신고하는 사례가 많아 정확한 피해 집계까지는 시간이 더 걸린다.

◇가로수 부러지고, 정전까지 = 정전과 침수 피해도 잇따랐고 태풍이 몰려날 때까지 뱃길과 하늘길도 통제됐다.

이날 새벽 5시11분께 여수시 시전동 주민센터 인근과 안산동 부영5차 아파트 770가구에서 정전이 발생해 1시간여만에 복구됐다. 같은 시각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일대 480가구도 전기가 끊겨 5시간여 만에 복구됐다.

주택, 가로수, 시설물 피해도 속출했다. 고흥군 동일면에서는 배수로가 역류해 주택이 침수되는 등 전남도에서만 15건의 침수 피해가 접수됐다. 여수 돌산읍 신복

리에서는 지붕 일부가 강풍에 날아갔다는 신고도 2건 접수됐다.

강풍에 부러지거나 뿌리째 뽑힌 가로수도 76그루에 달했고, 신호등과 가로등도 6개나 부러졌다. 영암 F1 경기장 지붕 일부도 강풍에 파손됐다.

이날 오전부터 결빙되거나 통제됐던 항공기, 여객선도 태풍이 몰려나 밤부터 운항이 정상화됐고, 탐방이 통제됐던 무등산 등 국립공원도 6일부터 출입이 허용된다.

제18호 태풍 '차바'는 4일과 5일 이틀동안 여수 돌산에 206.5mm, 고흥 127.1mm, 완도 91.4mm, 광주 70.7mm의 비를 뿌렸다. 5일 새벽 오전 9시에 여수시 고소동에 초속 38.9m의 강풍을 몰고오는 등 종일 강한 바람을 동반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 어린이 병원비 국가 보장 광주운동본부 출범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을 위한 광주운동본부(이하 광주운동본부)'가 5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

광주운동본부에는 광주사회복지사협회·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광주전남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정의당 등 20개 지역 정치 및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광주운동본부는 "연간 1000만원 이상 병원비를 지출하는 아동이 1만5220명이고, 1억원 이상 지출하는 아동도 881명이나 된다"면서 "국민건강보험이 있지만 병원비의 62% 정도만을 보장해 주고 있고 많은 필수적인 치료가 비급여로 남아 있어 아이가 중증질환에 걸리면 병원비 부담은 거의 재난적인 수준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중학교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의무교육이 진행되는 만큼 의료비용에 대해서도 최소한 중학생인 16세까지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면서 "갈수록 심화되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은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운동본부는 "건강보험의 누적 흑자 규모가 2010년부터 해마다 늘어서 올해 8월 기준으로 20조원을 넘어섰다"면서 "어린이 입원진료비 100%를 보장하는 데 들어가는 5152억은 누적 흑자액의 3%에도 미치지 못한다."

국민건강보험료의 누적흑자를 사용해 국가가 책임져 나가자는 것이 이 운동의 목표다"고 덧붙였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死闘’ 제18호 태풍 ‘차바’가 북상한 5일 오전 여수시 오동도 방파제 옆 바다에 빠진 선원을 여수해경 122구조대가 긴박하게 구조하고 있다. /연합뉴스

## 여수 파도에 휩쓸린 6명...해경구조대원 부상 투혼 구조

“살려주세요.”

5일 오전 8시20분께 여수해양경비안전서 상황실에 다급한 신고가 접수됐다. 태풍을 피해 여수 신항으로 피항한 여객선이 거센 파도에 밀려 오동도 방파제에 좌초됐다는 것.

태풍 대비 비상근무 중이던 여수해경 122구조대장 신승용 경위와 대원 6명은 곧장 현장으로 출동했다. 이들은 곧장 여객선 미남크루즈호(1321t)에 갇혀 있던 승무원 6명에게 구명조끼를 입힌 뒤 인근 방

파제로 탈출시켰다.

신 대장을 필두로 배에서 탈출한 승무원과 대원들은 방파제에서 육지까지 300여m를 뛰기 시작했다. 태풍이 몰고온 강풍과 빗줄기, 그리고 집체만한 파도가 방파제를 넘으면서 구조대원과 승무원들은 방파제 난간을 잡고 버텨야만 했다.

하지만 육지를 불과 수십m 앞두고 또다시 몰아친 파도에 구명조끼를 입은 승무원 2명과 이들을 붙잡으려던 해경구조대원 4명이 바다에 추락하고 말았다.

남은 선원 4명을 육지로 이동시킨 해경구조대원들은 승무원과 동료를 구하기 위해 망설임 없이 거친 바다에 뛰어들었고, 결국 승무원 2명과 해경 대원 4명을 무사히 구조했다. 이날 사고로 신 대장을 비롯한 박창용 경사, 박정채 경사, 이세중 경사 등이 다리와 무릎, 손목 등에 중·경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신 대장은 “구조대원들의 헌신으로 큰 인명피해 없이 사고를 마무리해 다행이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31 | 해질 18:09 | 일출 10:52 | 일몰 21:32

푸른 가을 하늘

아침 한때 안개가 끼겠지만 대체로 맑겠다.

◇지역별 날씨(℃)

광주	맑음	17/26	보성	맑음	15/25
목포	맑음	18/25	순천	맑음	17/26
여수	맑음	19/25	영광	맑음	15/24
나주	맑음	15/26	진도	맑음	17/25
완도	맑음	18/26	진주	맑음	15/25
구례	맑음	16/26	군산	맑음	15/24
강진	맑음	17/26	남원	맑음	15/25
해남	맑음	16/26	축산도	맑음	18/21
장성	맑음	14/25			

◇바다 날씨

		오전	파고(m)	풍향	파고(m)	오후
서해	앞바다	북~북동	1.0~2.0	북~북동	1.0~2.0	1.5~2.5
남부	앞바다	북~북동	1.5~2.5	북~북동	1.5~2.5	1.5~2.5
남해	앞바다	북~북동	0.5~2.0	북동~동	0.5~1.5	1.5~2.5
서부	앞바다(동)	북~북동	2.0~3.0	북동~동	1.5~2.5	1.5~2.5
남부	앞바다(서)	북~북동	1.5~3.0	북동~동	1.5~2.5	1.5~2.5

◇생활지수

- 식중독: 주의
- 자외선: 보통
- 미세먼지: 보통

◇물때

목포	밀물	04:49	01:00
	ebb	17:23	22:28
여수	밀물	11:44	05:11
	ebb	23:47	17:49

◇주간 날씨

7(금)	8(토)	9(일)	10(월)	11(화)	12(수)	13(목)
☁	☁	☀	☀	☀	☀	☀
14/24	17/23	13/19	10/21	12/21	11/21	12/21

## 광주 검찰시민위 활동 눈에 띄네

9월까지 31건 심의...미세 살인사건 기소 등

검찰시민위원회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라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유독 광주지검 검찰시민위 활동이 두드러져 눈길을 끌고 있다.

5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올들어 9월까지 검찰시민위원회를 17회 개최해 31건의 사건을 심의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13회, 23건보다 각각 30.7%, 34.5% 증가한 것이다.

앞서 6월까지의 9회, 17건을 처리해 전국 평균 6.32회보다 42.8%나 더 개최했다. 광주지검은 지난해에도 검찰시민위를 18회 열어 34건을 심의, 전국 평균(11.5회)보다 56.5% 많았다.

이는 시민의 의견을 반영해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고자 한 광주지검의 정책 방향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지난 6월말 출범한 제6기 검찰시민위의 경우 위원수를 27명에서 53명으로 대폭 늘리고, 심의 횟수도 월 2회에서 4회로 확대했다.

심의 안건도 지역사회의 관심이 집중된 굵직한 사건들이었다.

대표적 장기미제 사건인 '드들감 여고생 강간살인 사건'을 검찰시민위의 심의를 거쳐 기소했고, 생활고 등을 이유로 10남매 중 7명을 학교에 보내지 않은 부모에 대해서도 시민위의 의견을 들어 형사 처벌 대신 아동보호 처분했다.

폭염 특화서비스에 유치원생을 방치한 교사와 운전기사에 대해서는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검찰시민위의 심의를 거쳐 구속영장을 재청구해 발부받았다.

김희재 광주지검장은 "검찰시민위를 더욱 활성화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론 도출 시스템을 정립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

## 나주 폐기물업체 다이옥신 허용치 117배 배출

나주 다도면의 한 폐기물처리 공장에서 허용치의 100배가 넘는 다이옥신을 배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폐기물 처리업체 나주 A환경이 지난 2014년 배출한 다이옥신의 양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583ug(나노그램)으로 허용기준의 117배를 넘어선 것으로 지적됐다. /나주=손영철기자 ycsn@

창사 40주년, 특별大행사

# 보청기 1+1 무료!!

보조금(최대 131만원) | 맞춤렌탈 | 구입

특전 - 한쪽, 양쪽 모두 A/S, 배터리, 5년동안 **전부무료!!**  
(렌탈 표준 가입비 없음)

50% 특별大할인 양쪽으로 잘 듣고 활짝 웃으세요!!

광주 직영점 062)430-8900

순천·여수 직영점 061)741-4880 | 전주 직영점 063)251-4999

대한보청기 DAEHAN HEARING AID www.maxo.co.kr

◆정안본점 02)2248-5600 ◆종로본점 02)743-8100 ◆강남본점 02)542-8500 ◆송파점 02)420-2090 ◆영등포본점 02)2637-2800 ◆관악본점 02)3285-7600 ◆인천(부평)본점 032)516-2200 ◆수원본점 031)248-7200 ◆안양본점 031)442-2400 ◆분당본점 031)707-5787 ◆일산본점 031)917-1100 ◆의정부본점 031)840-2001 ◆구리본점 031)551-1310 ◆안산·시흥본점 031)407-2999 ◆천안·아산본점 041)522-1400 ◆청주본점 043)225-2900 ◆대전본점 042)486-9944 ◆대전동구본점 042)634-2080 ◆대구본점 053)253-4400 ◆대구서부본점 053)657-3700 ◆대구북구(칠곡)본점 053)311-7900 ◆포항본점 054)231-8070 ◆강원(원주)본점 033)731-2114 ◆부산본점 051)819-0038 ◆부산북구(덕천)본점 051)335-7800 ◆울산본점 052)256-9050 ◆청원·마산본점 055)222-3050 ◆광주·전남본점 062)430-8900 ◆전북(전주)본점 063)251-4999 ◆순천·여수본점 061)741-4880